

# 출시 임박 '아이폰11' 벌써 혹평… 혁신없이 모방만

('갤노트10' 판박이?)

애플, 10일 아이폰 신제품 공개  
카툭튀 카메라 등 디자인 혹평  
'갤럭시S10' 카메라 혁신과 같고  
3D 감지기능 등 AR기능도 비슷

신형 아이폰 출시가 임박했다. 여전히 혁신을 외쳤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10을 닦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스티브잡스극장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형 아이폰이 개발될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달 29일 발송한 초청장에는 '초청자만(By invitation only)'이란 말 대신 '혁신만(By Innovation only)'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나올 신형 아이폰은 더 이상 혁신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장, 디자인이 혹평 일색이다. 신형



유출된 새 아이폰 케이스 제품. 애플 펜슬을 수납하는 공간이 있다. /Olixar

아이폰은 이번에도 노치(notch)형 전면 카메라 디자인에 뛰어나온 카메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면 카메라가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카툭튀' 부분도 2배로 커졌다.

예상 스펙을 보면 혁신은 더욱 요원해진다. 아이폰11은 카메라를 전면에 1개, 후면에 3개를 장착할 예정이다. 모

두 1200만 화소로, 후면에 광각 카메라를 새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미 갤럭시 S10이 처음 시도한 것과 같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수정하고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을 탑재하는데, 이 역시 갤럭시 노트10이 지난달 선보인 바 있다.

증강현실(AR) 기능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이번 초대장에 로고를 투명하고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표현했다. 아이폰 11이 AR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3D 감지기능이 애플의 새로운 혁신 기능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공간을 인식해 증강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갤럭시 노트10에 적용된 템스비전과 비슷하다. 갤럭시 노트10은 ToF(비행 시간 거리측정)방식 카메라를 통해 공간 크기를 측정하거나 물체를 3D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 적용했다. 사람 움직임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모션을 재현하는 기술도 실현했다.

전력 공유 기능도 아이폰 11에 새로 적용될 유력한 기능인데, 갤럭시 S10이

이미 올 초 선보였다. 무선 이어폰을 포함해 무선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를 휴대폰 뒤에 올려 충전해주는 내용이다.

차기 AP인 A13 바이오닉도 이렇다 할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TSMC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져 더 빠르고 효율이 좋아질 뿐, 특별한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뉴럴 엔진 역시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동안, 삼성전자와 엑시노스 9825에 NPU를 장착하면서 따라잡은 상태다.

디스플레이도 갤럭시 최신 모델과 같은 패널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전작이 부진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고, 때문에 일단 갤럭시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사업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는 아이폰이 스타일러스펜을 지원하게 된다는 전망도 외신에서 나왔다. 애플 펜슬을 수납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케이스 구상도가 유출되면서다.

아이폰이 S펜으로 차별화했던 갤럭시 노트를 뒤따른다는 얘기다. 갤럭시 노트10의 S펜은 최근 인기 게임인 캠디

크리시와 컴투스 '낚시의 신'을 지원하면서 스타일러스 펜 활용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기도 했다.

아이폰이 지켜왔던 특수 기능들도 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당장 앤드로이드에 선보였던 3D 터치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사용 빈도가 크게 낮은데도, 원기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서다.

아이폰의 보안 시스템인 '페이스ID'도 그렇다. 더욱 정교해진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들은 보안이나 활용 면에서 불편한 얼굴 인식 기능에 기대를 접었다. 내년 경부터는 아이폰도 갤럭시에 적용된 초음파 지문인식을 탑재한다는 루머에 더 관심이 높은 눈치다.

라이트닝 케이블도 생사 기로에서 있다. 이번에도 아이폰은 라이트닝 케이블을 지원하게 된다는 전망도 외신에서 나왔다. 애플 펜슬을 수납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케이스 구상도가 유출되면서다.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부터는 아이패드와 같이 라이트닝 대신 USB-C를 적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KT,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KT가 한국영화 100년을 축하했다. IPTV가 한국 영화 발전에 일조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KT는 8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영화의 밤'을 열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해 마련했으며,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구현모 사장과 배우 조진웅, 올레tv 고객 200여명이 초청됐다. 인기 유튜버 '천재 이승국'이 진행을 맡았다. /KT

## 'LG 듀얼 스크린' 내 마음대로 버튼 배치

LG전자, 게임패드 기능 업데이트  
중요한 버튼 누르기 편한곳에 배치

LG전자가 LG 듀얼 스크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 앱 'LG 게임패드'에 '나만의 게임패드' 기능을 업데이트한다고 1일 밝혔다.

게임 조작버튼의 종류와 위치를 사용자가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용성을 높인다. 별도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의 순차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업데이트는 LG 게임패드의 사용성을 보다 높여준다. 게임에서 중요한 버튼을 누르기 편한 곳에 배치해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면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LG 게임패드가 지원하는 게임의 범위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콘솔, 아케이드, 레이싱, 클래식 등에 가지 게임 패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게임 종류에 최적화된 게임패드를



LG전자 모델들이 '나만의 게임패드' 기능을 통해 만든 게임패드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LG전자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게임에서 축구 게임과 야구 게임은 필요한 버튼의 종류나 개수가 다를 수 있는데, 각 게임에 필요한 버튼을 골라 사용자 편의에 맞춰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LG 게임패드는 외부 조이스틱을 통한 조작을 지원하는 모든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특정 게임을 위해 만든 게임패드는 해당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기본 컨트롤러로 실행된다.

/구서윤 기자

## "8K TV" 기준 해상도는 7680x4320"

### 삼성-8K협회, 인증기준 발표

삼성전자와 8K 협회가 지난 30일 8K TV를 위한 주요 성능과 사양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8K 협회는 8K 관련 표준 정립과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TV·패널 제조사, 시스템온칩(SoC) 칩업체, 콘텐츠 분야의 1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8K TV 관련 기준은 디스플레이, Soc 칩, 콘텐츠 관련 회원사들이 모두 참여해 현재와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8K 협회가 이번에 정한 기준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요 사양, 8K 신호 입력, 입력단자 규격, 미디어 포맷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돼 있다.

해상도는 7680 X 4320, 프레임 레이트는 24p·30p·60p로 규정됐다.

또한,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가 600니트 이상이 돼야 하고,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는 HDMI 2.1, 영상 압축 방식인 코덱은 HEVC로 정했다.



삼성전자 QLED 8K 제품인 Q900R 98인치 이미지. /삼성전자

8K 협회는 이번에 발표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8K TV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붙일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방법과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8K 협회와 함께 8K 생태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 확대에 힘쓰고 있다.

8K 협회는 올해 1월 삼성, 파나소닉, 하이센스, TCL, AUO 등 5개 회원사로 시작했으나,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이노룩스, 인텔, 노바텍, 브이 실리콘, 엑스페리, 아스트로 디자인, 루이스 픽쳐

스, 아텐, 텐센트, 칠리 등이 참여해 총 16개의 회원사로 확장됐다. 8K 협회는 TV와 패널 제조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유통사를 포함, 다양한 업체를 회원사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K 협회의 수석 운영위원인 크리스 치눅은 "8K 협회는 8K TV 기술의 주요 속성을 정의하는 등 차세대 영상 기술 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8K 생태계 확대를 위한 회원사들의 열정과 협력이 결국 8K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아시아나항공, 근무 전 인원 음주측정

이달 1일부터 안전운항 강화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 실시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 대상을 항공종사자 전 인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운항 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 관리사 등 근무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의 15%를 추출해 선별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안전운항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캐빈승무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

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되며,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측정기준 초과자(혈중 알코올농도 0.02% 초과) 발생시 즉각 근무투입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